

●●● 화법 ●●●

1. 말하기 방식의 파악 [2점] [정답] ③

강연자는 강연의 서두에서 “저는 은행나무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아서 미래의 모습을 꿈꾸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행나무 아래 나무 의자에서 여러분의 앞날을 꿈꾸곤 하겠죠?”라고 하여 청중인 후배와 공유할 수 있는 경험, 즉 은행나무 아래서 꿈을 키우는 학창 시절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② 강연자는 “빛이 넓게 퍼져서 대상을 비추고 있지요?”와 같은 질문을 했을 뿐, 청중의 질문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강연자는 표와 같은 시각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청각 매체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강연 내용의 이해와 적용 [2점] [정답] ②

풀 오프가 느린 조명은 굴곡이 없는 부드러운 질감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절벽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 풀 오프를 느리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풀 오프가 느린 조명은 굴곡이 없고 부드러운 질감을 드러내는 데 적합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어린 아이들의 매끈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풀 오프를 느리게 해야 한다.

③ 4문단에서 “하이키 조명은 시트콤과 같이 명랑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유치원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하이키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④ 4문단에서 로키 조명은 “어둡거나 음울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킴킴한 동굴 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로키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⑤ 4문단에서 “조명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면 일상에서 보는 모습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기괴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을 ‘로우 앵글 조명’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귀신의 모습을 공포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로우 앵글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3. 토의의 흐름 파악 [2점] [정답] ①

이 토의는 ‘반 대항 축구 대회의 대진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학생 2와 학생 4는 대진 방식을 토너먼트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리그전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학생 3과 학생 5는 대진 방식을 리그전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토너먼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학생 5는 두 방식을 절충하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다음,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평가를 통해 정리하고 후에 개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토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면서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두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으나 둘 중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다.

③ 논의할 주제를 확정된 뒤에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④ 해결 방안은 확정하였으나 이를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⑤ 토의의 뒷부분에서 해결 방안을 결정했으나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으며, 토의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4. 말하기 방식의 공통점 파악 [2점] [정답] ⑤

[A]의 학생 2는 작년에 진행하면서 생긴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되 경기 시간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B]의 학생 3 역시 작년에 진행하면서 생긴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리그전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A]와 [B] 모두 과거의 경험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한다고 할 수 있다.

5. 토의 내용의 이해 [3점] [정답] ④

학생 4는 “리그전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8개 반이 리그전을 벌이면 경기 수도 엄청나.”, “리그전으로 진행되어 반별 축구 경기가 많아지면 학급 대표로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관전만 하다가 수련회를 마칠 거야.”라고 하였다. 즉, ㉠은 수련회 활동에서 축구 대회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③ 학생 3은 “작년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력이 뛰어난 반들끼리 1차전에 붙어서 첫 경기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 불만이 많았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경기력이 뛰어난 반이 일찍 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실력 있는 팀이 일찍 탈락해 학생들의 호응이 줄 것을 염려하여 제안된 의견이다.

●●● 작문 ●●●

6.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 [2점] [정답] ⑤

셍테드의 적용 한계와 해결책은 초고에 나와 있지 않다.

① 1문단에서 ‘그는 두 마을의 공간 디자인이 범죄의 빈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로부터 ‘셍테드 이론’의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여 셍테드 이론의 연구 계기를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만들 때 주변에 높이가 낮은 나무를 심어 시야를 확보하는 것, CCTV와 가로등 등의 시설을 두는 것’ 등 셍테드가 적용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7.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3점] [정답] ⑤

[가]를 고려할 때, [A]에는 셍테드 활용의 의의와 셍테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⑤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범죄 발생률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여 셍테드 활용의 의의를 진술하고 있으며, ‘셍테드가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여 셍테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1) 셍테드 활용의 의의를 요약적으로 진술	(2) 셍테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 촉구
①	X	X
②	O	X
③	△(초고의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음.)	X
④	X	O



8.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⑤

‘배정하는’은 ‘몫을 나누어 정하는.’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의 앞에 오는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고려할 때, ㉠은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고쳐 써야 한다. 그런데 ‘제정하는’은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는.’을 의미하므로 ㉡를 ‘제정하는’으로 고쳐 써도 문맥이 어색해진다. ㉢은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두는.’의 의미를 지니는 ‘배치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이 포함된 문장과 앞 문장은 순접의 관계가 아니라 역접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자신의 범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주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가 ‘이 기법은’이므로 서술어는 ‘주목받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주변’은 나무를 심는 장소이므로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에’를 사용하여 ‘주변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내용 같은 유형 문항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문 과제 ‘최저 임금제’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최저 임금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그러므로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 조정 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기타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 시행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1928년부터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도 채택되었다.

㉤ 현대 사회는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 본래 이 제도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 근로자나 미성년 근로자 등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일반 노동자들도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혹사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지나치게 임금이 낮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는 것이 최저 임금제의 주된 목적이지만, 그 밖에도 동종 업종 내에 있는 기업 간의 경쟁 경쟁을 보장하는 목적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 ① ㉠은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지급’으로 바꿔 쓴다.
- ②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고쳐 쓴다.
- ③ ㉢은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 ④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시행되고’로 고쳐 쓴다.
-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의 뒤 문장은 앞 문장에서 정의한 최저 임금제의 취지를 보다 상세하게 부연한 것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상반된 사실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하지만’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9. 작문의 성격 및 특성 파악 [2점] [정답] ①

초고는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직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

다는 점에서 작문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현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⑤

초고의 셋째 단락에서 해외 직구의 비율이 낮은 상품은 적극 홍보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1에서 '패션 의류 및 잡화'는 해외 직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이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품목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다)는 역직구의 활성화가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해외 시장의 개척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⑤의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가)는 역직구에 비해 해외 직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므로 역직구 유도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 적절하다.
- ② (나)-1은 해외 직구를 하는 주요 품목이 패션 의류 및 잡화와 식품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므로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상품의 예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나)-2는 해외 직구를 할 때의 불편 사항을 나타내는 자료로, 초고에서 이를 활용하면 역직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직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환불, 교환 절차의 간소화 및 AS의 개선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다)는 역직구의 활성화가 인터넷 쇼핑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산업 및 물류 산업의 활성화로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 문법 ●●●



11. 음운 변동의 이해 [2점] **정답** ②

'꽃잎'이 [꼰닙]으로 발음되는 과정은 [꼰닙] → [꼰닙] → [꼰닙]과 같다. 즉, 제8항에 따라 받침 'ㅈ'과 'ㅊ'이 각각 'ㄷ'과 'ㅂ'으로 바뀌었고, 제29항에 따라 'ㄴ'이 첨가되었으며, 제18항에 따라 받침 'ㄷ'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었다.

한눈에 쏙 보는 해설

	발음의 변화 과정	규정
①	꽃나무: [온나무] → [온나무]	• 제8항: ㅈ → ㄷ • 제18항: ㄷ → ㄴ
③	콩잎: [콩엽] → [콩닙]	• 제8항: ㅅ → ㄷ • 제29항: ㄴ 첨가
④	샷일: [삭일] → [삭닙] → [샷닙]	• 제8항: ㅈ → ㄷ • 제29항: ㄴ 첨가 • 제18항: ㄷ → ㄴ
⑤	홀이불: [혼이불] → [혼니불] → [혼니불]	• 제8항: ㅌ → ㄷ • 제29항: ㄴ 첨가 • 제18항: ㄷ → ㄴ

합성 피하기

④가 적절한 진술인 이유는?

'샷'의 'ㅈ'이 'ㄷ'으로 바뀌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 현상으로, 자음군 단순화란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군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하는 현상이다. <보기>의 제8항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므로 ④는 제8항의 규정이 반영되어 발음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2. 합성어 유형의 이해와 적용 [2점] **정답** ①

'썩밭'은 '썩'과 '밭'이 결합된 말이지만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를 지니므로 본래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갖는 융합 합성어이다. '밤낮'은 '밤'과 '낮'이 결합된 말로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의미를 지니므로 원래의 뜻을 잃지 않는 대등 합성어이다. 참고로 '밤낮'이 '늘'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본래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갖는 융합 합성어이다. '책가방'은 '책'과 '가방'이 결합된 말로 '책이 들어 있는 가방'의 의미를 지니므로 '책'이 '가방'을 꾸며 주는 종속 합성어이다.

다른 내용 같은 유형 문항

<보기 1>은 합성 과정에서의 의미 변화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 A+B → AB : 두 어근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본래의 뜻을 유지함. ㄱ
예) 손+밭 → 날씨가 추워 손밭이 시리다.
- A+B → AX/XB : 한쪽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함. ㄴ
예) 손+수건 →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다.
- A+B → XY : 두 어근이 결합되어 제3의 의미를 생성함. ㄷ
예) 피+땀 → 그는 평생 피땀을 흘려 재산을 모았다.

—<보기 2>—

- a. 날씨가 험해 배가 앞뒤로 기우뚱거렸다.
- b. 철수는 아침밥을 일찌감치 먹고 책가방을 썼다.
- c. 영희는 밤낮 일만 하다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 | | | | | | |
|---------|---------|---|---|---|---|
| ㄱ | ㄴ | ㄷ | ㄱ | ㄴ | ㄷ |
| ① a b c | ② a c b | | | | |
| ③ b a c | ④ b c a | | | | |
| ⑤ c a b | | | | | |

.....

a는 '앞과 뒤'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므로 두 어근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ㄱ). b는 한쪽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ㄴ). c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므로 두 어근이 결합되어 제3의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ㄷ).

정답 ①

13. 서술어 자릿수의 이해 [2점] **정답** ④

'올해 봄꽃은 작년보다 아름답게 피었다.'에서 서술어 '피었다'는 문장에서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며, '아름답게'는 용언인 '아름답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된 형태로,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무방한 수의적 부사어이다.

- ① '부부는 서로 닮았다.'와 같이 주어와 복수를 나타낼 경우에는 '닮았다'가 주어 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한글날이다'는 체언인 '한글날'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말이다.
- ③ 주어와 복수가 아닌 단수일 경우에 서술어 '닮았다'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필수 부사어 '남편과'를 꼭 요구한다.
- ⑤ '주다'는 '누군가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주어에 해당하는 '누군가가'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무엇을', 그리고 부사어에 해당하는 '누구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4. 필수적 부사어의 이해 [2점] **정답** ①

- ① '그들은 그물로 멧돼지를 잡았다.'에서 '잡다'는 '붙들어 손에 넣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때 '그물로'는 문장에서 생략해도 무방한 수의적 부사어이다.
- ② '삼다'는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나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③ '대우하다'는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넣다'는 '한정된 공간 속으로 들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⑤ '적합하다'는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다.'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 [3점] **정답** ③

- '고지리'는 명사 '꽃'에 '이리'가 결합된 말을 이어 적기로 표기한 것이고, '므스게' 역시 '므스'에 '에'가 결합된 말을 이어적기로 표기한 것이다.
- ① '大噴關'에는 합용 병서가 초성에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받즈불'은 한자음이 아니므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니르샤디'에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을 뿐,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⑤ '부텃기'에는 주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알짜 개념

연철과 분철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중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쓰였는데, 이를 연철(連綴, 이어적기)이라 한다. 이는 한 음절의 표기를 원래의 문법 형태를 밝혀서 적지 않고, 발음이 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예) 말쌈미, 말쌈물, 기프샤, 기퍼셔, 기프니
 그러나 『월인천강지곡』에는 분철(分綴, 끊어적기)을 한 형태가 발견된다. 체언에 조사가 붙는 곡용의 경우는 '손으로, 일울, 몸이' 등과 같이 체언이 유성자음 'ㄴ, ㄹ, ㅁ' 등으로 끝날 때 분철을 하고 활용의 경우는 용언의 어간이 'ㄴ, ㅁ'으로 끝날 때 분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발음된 결과를 중시하여 연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 / 「혈액 순환 이론」

지문 들여다보기

- 영역: 과학(생물)
- 핵심어: 혈액, 폐순환, 체순환, 정맥, 동맥, 모세혈관
- 해제: 이 글은 하비의 혈액 순환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대 의학에서 혈액 순환의 경로는 폐순환과 체순환이 있으며 우리 몸은 이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주고받는다. 고대 의학자인 갈레노스는 피가 간에서 생성되었다가 소멸한다고 보았는데 하비는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이 이론을 반박하였다. 하비는 혈액의 정량적 고찰을 통해 혈액이 순환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끈과 철사를 통한 실험으로 혈액이 동맥을 통해 몸의 끝부분으로 흘러가고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하비가 사망한 후에 말피기가 폐의 모세혈관을 설명함으로써 하비의 혈액 순환 이론을 완성하였다.
- 문단별 중심 내용

1문단	근대 의학에서의 혈액 순환
2문단	혈액에 대한 갈레노스의 이론
3문단	갈레노스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하비가 설명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
4문단	혈액의 정량적 고찰을 통해 논증된 혈액 순환 이론
5문단	끈과 철사를 통한 실험으로 입증된 혈액 순환 이론

16. 글의 전개 방식의 파악 [2점] [정답] ⑤

이 글은 갈레노스의 혈액 생성 이론을 논박하고 혈액이 순환된다는 하비의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이론이 기존의 이론을 뒤엎고 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 세부 내용의 추론 [2점] [정답] ①

- 2문단에서 갈레노스의 이론은 당시의 기독교의 교리에 잘 들어맞는 것이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의학계를 지배했다고 하였을 뿐, 기독교적 세계관이 과학적 이론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4문단에서 하비는 '맥박이 한 번 났을 때마다 약 4.7ml의 혈액이 밀려나오고 30분에 1000번씩 났다고 가정한 후 이에 필요한 혈액이 하루에 약 245kg이라는 것을 산출하였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맥박이 많이 났을수록 심장에서부터 방출되는 피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 1문단에서 체순환의 과정에서 혈액은 온몸의 조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 2문단에서 갈레노스에 따르면 간에서 생성된 혈액의 일부는 폐로 가고 나머지는 좌심실로 넘어가서 '생명의 정기'를 공급받아 온몸에 쓰이고, 일부는 뇌에 도달하여 '동물의 정기'를 공급받아 신경을 통해 신체 곳곳으로 내려가 신체 운동을 조절하게 된다고 하였다.
 - 4문단에서 하비는 맥박 수와 혈액 양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혈액이 생성된 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18. 세부 내용의 적용 [2점] [정답] ①

- 1문단을 통해 ㉠은 우심실, ㉡는 폐, ㉢는 좌심실임을 알 수 있다. 갈레노스는 하비와 달리 우심실에 있는 혈액의 일부는 폐로 가며 나머지 혈액은 심실 중격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좌심실로 넘어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 마지막 문단에서 말피기가 폐의 모세혈관을 설명함으로써 하비의 혈액 순환 이론을 완성했다고 하였다.
 - 갈레노스는 좌심실로 넘어간 혈액이 '생명의 정기'를 공급받아 온몸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 하비는 혈액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통과한다고 가정하고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액이 통과하기 위해 폐에 혈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19.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점] [정답] ①

하비는 ㉠의 실험을 통해 정맥은 심장 방향으로 동맥은 반대 방향인 몸의 끝부분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끈이 동맥을 묶었다면 심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A 부분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피가 공급되지 않아 끈 아래쪽인 B 부분의 피부가 창백해질 것이다. 반대로 끈이 정맥을 묶었다면 심장 방향으로 흐르는 B 부분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피가 공급되지 않아 끈 위쪽인 A 부분의 피부가 창백해질 것이다.

20. 바꿔 쓸 단어의 적절성 파악 [2점] [정답] ②

- '부합(符合)하는'은 '부신(符信)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의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들어맞는'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하다.
- '규합(緝合)하는'은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으는.'의 의미를 지닌다.
 - '연합(聯合)하는'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의 의미를 지닌다.
 - '취합(聚合)하는'은 '모아서 합치는.'의 의미를 지닌다.
 - '통합(統合)하는'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는.'의 의미를 지닌다.



예술 + 고전 시가

- 「연시조의 유형과 특징」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이취일, 「전가팔곡(田家八曲)」

21. 문학 갈래에 대한 이해 [2점] [정답] ①

- 3문단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단형시조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시가(四時歌)는 연시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내용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시조라는 형식적 틀은 사시의 내용을 구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문단에서 연시조는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였고, 사대부들 중에는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였다.
 - 1문단에서 연시조는 3장(초·중·종장) 구조의 평시조를 한 연으로 하여 두 연 이상 중첩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 2문단에서 연시조는 그 내용 및 지향에 따라 강호가도(江湖歌道)를 노래한 강호 시조와 오류의 질서 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훈민 시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단형시조가 18세기에 접어들며 가객의 등장으로 성행했던 것과는 달리 연시조는 16세기에 그 형식적 틀을 마련하여 17세기에 성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2점] [정답] ④

- (나)의 <제1수>~<제4수>에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과 변함없는 '군은(君恩)'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강호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의 '亦君恩(역군은)이샷다'는 매 연마다 반복되는 장치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다)의 '高山九曲潭(고산 구곡담)을 살뜰이 물으든이'는 시상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一曲(일곡)은 어드미고', '二曲(이곡)은 어드미고', '三曲(삼곡)은 어드미고'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유기적인 시상 전개와 단어가 된다.
 - (다)의 <제2수>~<제4수>의 초장 전반부에 사용된 '~은 어드미고'는 작품이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전개되도록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라)의 <제2수>~<제5수>에서는 봄-여름-가을-겨울로 시상이 전개되는데, <제5수>에서 '來年(내년)희 봄 온다 흐거든 결의 從事(종사) 흐리라.'라고 하여 겨울이 다시 봄으로 이어질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시간의 순환성을 보여 주고 있다.

알짜 개념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표현

고전 시가를 제대로 학습하려면 옛말, 즉 고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익혀 두면 낯선 작품들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 亦君恩(역군은)이샷다

'亦君恩(역군은)이샷다'는 '역시 모두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연금지정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강호가도류를 노래한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작자 미상의 「감군은(感君恩)」, 송순의 「면양정가(俛仰亭歌)」 등이 있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3점] [정답] ②

- '퇴휴(退休)의 공간'이란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는 사대부들이 퇴임 후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나)의 화자는 '강호'에서 한가로움과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라고 하여 이를 임금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강호'를 유교적 이념에서 벗어난 퇴휴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武夷(무이)'는 주자의 '무이구곡'에 나오는 산으로 주자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화자가 '武夷(무이)'를 떠올리고 '學朱子(학주자)'를 다짐하는 것은 화자가 유학의 도(道)에 이르기 위한 수신처로 강호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遠近(원근)이 글림이로다'는 화자가 '강호'의 아름다움에 취해 내발은 감탄으로, 강호를 심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밤으란 스를 쪼고 나죄란 썬을 부여'를 통해 화자가 겨울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來年(내년)희 봄 온다 허거든 결의 從事(중사)허리라.'를 통해 내년 봄 농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강호를 일상적인 생산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26]

현대 소설 / 이문구, 「우리 동네 김씨」

24. 인물의 태도와 심리 파악 [2점] [정답] ④

유순봉은 김씨가 물을 훔쳐 쓰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행위로 보았으나, 전기를 훔쳐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김씨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물에 양수기를 대고, 전기를 끌어들이자 자신의 눈에 물을 대게 된다.
- ② 김씨는 중년 사내가 한전 직원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가 천북면 수리 담당이거나 장승골에 사는 사람이라서 자신이 물을 끌어 쓰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③ 중년 사내는 입자 없이 흘러가는 물을 쓰는 것이 무엇이 대수냐고 말하는 반면, 유순봉은 물이 있는데 전기가 없어 물을 못 끌어 들이는 사람이 전기 좀 쓰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⑤ 중년 사내는 유순봉이 김씨의 도수(盜水)를 문제 삼는 것을 “참 씨받을 인심일세그러. 그러는 게 아녀.”라고 하면서 인심의 각박함을 비꼬아 지적하고 있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3점] [정답] ④

김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민방위 훈련에 빨리 갈 것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시책을 따르는 것에 불과할 뿐, 자기방어적인 형태로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아니다.

- ① 중년 사내는 김씨가 전기를 몰래 훔쳐 쓴 것을 ‘이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단지 전기를 몰래 훔쳐 쓴 것뿐인데 이를 이적 행위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확대·과장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 ② 중년 사내는 김씨가 전기를 몰래 훔쳐 쓴 것을 ‘안보적 문제’라 말하고 있다.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의미하므로 이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외피를 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중년 사내는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로 김씨에게 말하고 있다. 중년 사내가 한전 출장소 직원임을 고려하면 중년 사내의 위협적인 태도는 농민을 대하는 국가 권력의 공세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중년 사내의 ‘불법적으로’라는 말에 김씨는 ‘물법적으로’라는 말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중년 사내가 한 말을 되받아 말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희화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6. 사건의 기능 추리 [2점] [정답] ⑤

민방위 훈련을 갈 것을 재촉하는 김씨 아내의 말을 듣고 김씨를 비롯하여 남병만과 장재원, 유순봉은 그동안의 논쟁을 잊고 다들 바빠 자리를 뜨고 있다. 따라서 ①은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인물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이 글은 인물 간의 관계가 숨겨져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민방위 훈련이 농민들의 경제적 궁핍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성격 변화의 양상을 보여 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자신의 지난 행동을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7~28]



극 / 이강백, 「느낌, 극락 같은」

27. 작품의 구조 이해 [2점] [정답] ②

A에는 동연과 서연, 서연과 함묘진 사이에 예술관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 있지만 이 갈등이 B에서 촉발되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둘러싼 인물 간의 갈등은 A에서 동연과 서연의 대사, 서연과 함묘진의 대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③ 관객들은 현재 시점의 사건인 A와 미래의 인물이 등장하여 A의 의미를 부연 설명해 주는 B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④ 함이정은 현재의 장면인 A에 속해 있는 인물이자, 미래에 태어날 아들인 조승인과 함께 미래의 장면인 B에도 속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함이정은 A의 의미를 B의 조승인에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A와 B를 연결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B에서 함이정과 조승인은 대화를 통해 A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언급함으로써 A의 상황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

2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3점] [정답] ⑤

함묘진이 완성된 불상을 스님들에게 보여 주는 자리에서 동연의 불상을 한가운데에 놓은 것은 제자인 동연의 불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함묘진이 동연의 불상이 좋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그러나 함묘진은 불상이 부처의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는 서연의 말에 “부처의 마음을 알려거든 다른 자에게 물어라!”라고 하면서 불상이 부처의 마음, 즉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함묘진이 동연의 불상이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서연은 자신이 만든 불상이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부처의 마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서연은 자신의 불상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② 동연은 부처의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면, 반드시 그 완벽한 형태 속에는 부처의 마음도 있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③ 조승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함이정에게 불상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서연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조승인은 예술에 있어서 내용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동연은 자신이 만든 불상을 높은 값에 팔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동연이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내용보다 형태를 중시하는 예술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29~32]

사회 / 「환율 결정 이론 - 구매력 평가설」

29. 핵심 정보의 이해 [2점] [정답] ②

2문단에서 ‘구매력 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입각하는데, 일물일가의 법칙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어디에서나 같아야 하며, 차익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구매력 평가설’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이나 수송비 등의 거래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설’이 거래 비용이 높을수록 차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1문단에서 ‘환율은 자국 통화로 표시된 타국 통화의 가격 또는 두 나라 사이에 교환되는 양국 통화의 상대 가격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환율의 결정과 그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있다.’라고 하였다.



30.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 [3점] [정답] ⑤

1등급 Logic

1. 표의 내용을 파악한다.

-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한 예측 환율과 명목 환율이 제시됨.
- 빅맥 기준 예측 환율은 ‘국가별 빅맥 가격/3달러’에 해당함.
- 한국의 경우 빅맥 기준 예측 환율이 명목 환율보다 낮음.
- 일본의 경우 빅맥 기준 예측 환율이 명목 환율보다 높음.

2. <보기>의 표가 지문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다.

3문단과 4문단에서 명목 환율과 예측 환율이 변화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3문단과 4문단을 활용하여 표를 해석하고 답지의 정오를 판별해야 한다.

3. <보기>의 표를 지문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①	한국의 빅맥 기준 예측 환율(900원/1달러)은 명목 환율(923원/1달러)보다 작으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반한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빅맥 가격은 2,700원보다 높게 조정되어야 한다.
②	빅맥의 경우 미국과 한국 간,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에 빅맥 기준 예측 환율과 명목 환율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빅맥 기준 예측 환율은 ‘국가별 빅맥 가격/3달러’이므로 미국에서의 빅맥 가격이 현재보다 오르면 한국의 빅맥 기준 예측 환율은 ‘900원/1달러’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④	일본에서 판매하는 빅맥의 가격을 270엔으로 내리면 빅맥 기준 예측 환율은 ‘90엔/1달러’가 되므로 명목 환율과 일치하게 된다.
⑤	한국과 미국의 빅맥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빅맥 기준 예측 환율은 ‘900/1달러’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한국의 화폐는 미국의 화폐에 비해 절하된다. 따라서 명목 환율은 올라가게 되므로 빅맥 기준 예측 환율과 명목 환율 사이의 차이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31. 이유의 추리

[2점] 정답 ③

만약 A국의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A국의 화폐의 가치가 B국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특정 재화를 살 때 필요한 A국의 화폐량은 B국의 화폐량에 비해 많아지게 된다. 즉 동일한 양의 재화를 사는 데 필요한 화폐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A국의 화폐가 B국의 화폐에 비해 절하된다고 할 수 있다.

32.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2점] 정답 ③

㉔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면.'의 의미를 지닌다. ③의 '일기 예보에 따르면'은 '일기 예보에 근거하면'의 의미를 지니므로 ③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① '그릇을 기울여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밖으로 조금씩 흐르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 ②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 ④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의 의미를 지닌다.
- ⑤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른다.'의 의미를 지닌다.

[33~38]

예술+기술 / 「범종의 예술성과 주조법」

33. 글의 전개 방식 파악

[2점] 정답 ②

이 글은 1문단에서 우리나라 범종이 형태와 소리 측면에서 우수함을 언급한 후, 2~4문단에서는 우리나라 범종이 외형적으로 다른 나라의 범종과 구별되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5~8문단에서는 우리나라 범종의 소리가 지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 글은 우리나라 범종의 특징을 형태와 소리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세부 내용의 추론

[2점] 정답 ②

4문단에서 납형법은 내형틀을 제작한 뒤 외형틀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밀랍 물로 문양을 만들고 이를 밀랍으로 만든 범종 모형에 붙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납형법은 ㉔의 과정에서 문양을 새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문단에서 회전형법은 범종의 외형에 문양을 찍어 새긴다고 하였으므로 ㉔의 과정에서 문양을 새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5. 이유의 추리

[2점] 정답 ③

4문단에서 밀랍 표면에 바른 주물사가 마르면 표면에 숯불로 열을 가해 밀랍을 녹인다고 하였다. 만약, 주물사가 열에 강한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면 주물사로 만든 외형틀은 밀랍이 녹을 때 함께 녹아 버리거나 열에 의해 형체가 달라지게 된다. 즉, 밀랍을 녹이는 과정에서 외형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물사가 열에 강한 성질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36.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점] 정답 ①

7문단에서 용통은 내부가 비어 있고 아래쪽이 종신 내부에 관통되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용통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종신에 관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용통은 종을 칠 때의 격렬한 진동을 걸러 내어 충격을 제거하고, 용통이 있으면 출구가 깔때기 모양으로 벌어져 있어 저주파는 오래 보존하고 고주파는 신속히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용통이 진동과 고주파를 종신의 내부 빈 공간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용뉴의 모양은 우리나라 범종을 다른 나라의 범종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며, 타종은 용머리가 보이는 전면 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당좌는 종을 치는 자리에 배치한 원형 장식이며 당좌가 배치되는 부분은 종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부분으로, 타종했을 때의 충격과 그에 따르는 종의 파손을 막기 위해 배치하였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서 우리나라 범종은 종신의 상하 부분과 가운데 부분이 두께가 달라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소리가 나오면서 소리를 먼 데까지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⑤ 6문단에서 종구 쪽 아랫부분을 안으로 오므라들게 설계하여 종의 공명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37. 반응의 적절성 판단

[2점] 정답 ⑤

5문단에서 우리나라 범종은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들로 인해 맥놀이 현상이 발생하여 종소리가 멀리 전파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속삭이는 회랑'은 복도에서 나온 소리가 타원 모양의 천장에 반사되어 건너편 복도에서도 그 소리를 뚜렷이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범종은 주파수가 다른 소리들에 의해 종소리가 멀리 전파되고, '속삭이는 회랑'은 소리의 반사와 타원의 성질에 의해 소리가 건너편 복도로 전파된다고 할 수 있다.

38.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2점] 정답 ⑤

㉔과 ⑤의 '막다'는 모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㉔의 '이루어지다'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㉔의 '돌리다'는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어떤 물건을 나누어 주거나 배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㉔의 '걸다'는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㉔의 '벌어지다'는 '그릇 따위가 속은 얇고 위가 넓게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음식 따위를 번듯하게 차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9~42]

고전 소설 / 작가 미상, 「숙향전(淑香傳)」

39. 작품의 내용 이해

[2점] 정답 ②

사향은 시기심으로 숙향에게 누명을 씌워 장 승상택에서 숙향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숙향에 대한 장 승상 내외의 태도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을 눈치채고 급하게 숙향을 몰아붙여 집

밖으로 쫓아내려 한다. 이는 '이리하여 장 승상과 부인이 숙향을 용서하고 다시 집에 두려는 눈치를 알고, 사향은 곧 숙향의 방으로 달려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승상께서 나를 그대로 두려는 마님을 대책하시고 나더러 시급히 나를 내보내라 하시니 어서 나가거라."로 보아, 사향은 부인을 '마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따라서 사향이 장 승상 내외의 친자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슬픔을 머금고'로 보아, 숙향은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없어 슬퍼하고 있을 뿐,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④ '옥지환 한 짝'은 숙향이 부모와 이별할 때 받은 것으로, 누명을 쓴 것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다.

⑤ 사향이 숙향을 급하게 집 밖으로 내몰며 한 말은 장 승상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장 승상의 말을 거짓으로 꾸며 전달한 것이다.

40. 사건의 의미 파악

[2점] 정답 ④

숙향이 "금봉채와 장도는 소녀가 가져온 바 결코 아니요, 귀신의 조화가 아니면 사람의 간교이오니 이제 발명하여 무엇하오리까? 마님 눈앞에서 죽사와 소녀의 백옥같이 청백한 마음을 표하고자 하옵니다."라고 하며 자결하려 하자 부인은 숙향의 결백을 믿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장 승상에게 "내가 이제서야 생각이 나오이다. 금봉채와 장도는 내가 갖다가 숙향의 방에 두었던 것이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탓으로 이제 숙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거짓으로 고하며 숙향이 결백함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자 숙향에 대한 장 승상의 노기가 누그러지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한 설명이다.

① 꿈에는 숙향의 위태로운 처지가 암시되어 있으며 중이 와서 도끼로 꽃가지를 베어 버리자 앵무새가 놀라서 달아난 것은 숙향이 사향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꿈을 통해 숙향에 대한 장 승상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4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2점] 정답 ②

<보기>에서 서사에 재미를 주는 요소인 '호기심'은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숙향이 다섯 차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신문을 통해 숙향이 장 승상의 집에서 쫓겨나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숙향이 물에 빠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 불안감과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숙향은 사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궁지에 내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향과 지속적으로 적대시하면서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숙향은 까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때 까치 이야기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로 보기 어려우며 까치 이야기를 통해 결말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도 않다.

④ 숙향이 물에 빠지는 장면에서 '수세(水勢)가 급한 데다가 풍량이 일어서'와 같이 강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⑤ 칼을 들고 자결하려는 숙향의 행위는 반복하여 나타나지만 이것이 숙향이 혈서를 남기고 떠나는 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칼을 들고 자결하려는 숙향의 행위를 ㉔와 연결지을 수 없으려면 그 칼을 이용해 혈서를 쓰거나 혈서를 쓴 후

칼을 들고 자결하는 장면이 나타나야 한다.

다른 내용 같은 유형 문항

한 곳에 다다라 보니 문득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으로 헤매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깃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지라 모두 탄성을 내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였다.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들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蓮葉舟)를 바삐 저어 숙향의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이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배 안의 아이들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버리 버리십니까? 저희는 향아(姪娥)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려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까?/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뜨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父王)이 아시고 노하여 칩을 반하수에 내치심에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히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사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전의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노전(蘆田)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육만 बी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상사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願(自願)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와서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숙향이 선녀더러 물어 말하였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데 강물을 평지와 같이 다닐까요?”

선녀 말하기를,

“그는 동해 용왕의 딸로서 전일 부인의 부친 은덕으로 살아났음에 이제 와서 부인을 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였다. 숙향이 말하기를,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고행하다가 더러운 이름을 쓰고 차마 세상에 있지 못하여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한 것인데 그대들이 멀리까지 와서 수고로이 구하여 주시니 감격하였습니다.”

하니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께서 인간 진애(人間塵埃)에 잠겨 저희를 몰라보십니다.”

하고 이슬 같은 차를 주며 말하였다.

“이를 먹으면 자연 알게 되실 것입니다.”

숙향이 받아먹으니 그제야 월궁 소아로서 태을과 글을 지어 창화(唱和)하고 월연단을 흠쳐 태을에게 준 죄로 인간 세상으로 적강한 일과 그 아이 둘이 부리던 시녀였던 것이 기억났다.

〈중략〉

차츰, 숙향이 울며 동쪽으로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수천 리 갈대숲이 하늘에 닿았고 인적이 없는지라 홀로 갈대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 사면이 어둑하거늘 갈대 포기를 의지하여 졸았다. 이윽고 광풍(狂風)이 크게 일고 화광이 사면으로 에워 들어왔다. 숙향이 놀라 깨었으나 천지가 아득하여 진퇴유곡(進退維谷)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데, 문득 한 노인이 막대를 짚고 와서 물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아이인데 무인 심야(無人深夜)에 화재를 만났느냐?”

하니 숙향이 말하기를,

“소녀 동서 유리(遊離)하옵다가 길을 잘못 들어 이곳에 와 생각지도 못한 화재를 만나 죽게 되었사오니, 바라건대 노인은 신명(身命)을 구제하십시오.”/ 하였다. 노인이 말하였다.

“내 이미 이 정도의 불은 견딜 수 있으나 사세(事勢)가 위급하니 네 옷을 벗어 버리고 내 등에 오르라.”

숙향이 옷을 벗고 노인의 등에 오르니 불꽃이 벌써 있던 곳에 닿았는지라 노인이 소매로부터 홍선(紅扇)을 내어 부치며 무슨 주문을 외니 화염이 범치 못하였다. 노인이 숙향을 업어다가 노전을 건네 놓고 옷소매를 베어 주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앞을 가리우고 동쪽으로 가면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작자 미상, 「숙향전(淑香傳)」-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하늘의 존재로서 지상에 내려오는 형식으로 설정되는데, 이를 ‘적강(謫降) 모티프’라고 한다. 주인공이 적강한 존재라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주인공의 비범함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특별한 내용을 예고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전 소설은 지상과 천상의 이원 구도 속에서 지상에서 벌어질 일들이 천상의 존재에 의해 미리 예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언적 모티프’라고 한다. 또한 적강한 존재로 설정된 주인공에게는 그 천상의 신분과 결맞은 이인(異人)이 등장하여 주인공의 운명을 직접 예고하거나 도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인 모티프’라고 한다.

- ① ‘노인’이 ‘홍선’을 부치며 화염에서 ‘숙향’을 구출한 것으로 보아, ‘노인’은 ‘이인(異人)’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숙향’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숙향’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비범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월연단’을 흠쳐 태을에게 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일을 ‘숙향’이 떠올리는 것으로 보아, ‘숙향’이 적강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④ ‘숙향’이 이인(異人)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으로 보아, ‘숙향’이 천상의 존재로서 지녔던 위엄을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용녀’가 말한 대로 ‘숙향’이 노전(蘆田)에서 화재를 겪게 된 것으로 보아, ‘숙향’에게 닥치게 될 일들이 천상의 존재에 의해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숙향’은 이인(異人)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을 뿐, ‘숙향’이 위엄을 드러내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④

42. 한자 성어의 이해 [2점] 정답 ③

①은 ‘숙향’이 ‘부인’에게 고아인 자신을 자식처럼 아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말이다. ‘백골난망(白骨難忘)’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을 아껴 준 ‘부인’에 대한 ‘숙향’의 심리를 나타내는 말로 적절하다.

- ①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 ④ 암중모색(暗中摸索):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 ⑤ 환골탈태(換骨奪胎):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판사람처럼 됨.

[43~45]

현대시

- (가) 윤동주, 「십자가」
- (나) 김중해, 「형해 일지 1 - 무인도를 위하여」

43.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2점] 정답 ③

(나)는 ‘나의 배는 가야 한다.’, ‘나는 노질을 계속

해야 한다.’와 같이 시적 화자인 ‘나’를 작품 표면에 직접 노출하여 화자의 신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작품 표면에 화자를 직접 노출하고 있지 않다.

- ① (나)는 ‘사라져 가는 것, 떨어져 가는 것, 시들어 가는 것’과 같이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가)는 그렇지 않다.
- ② (가)는 ‘걸리었습니다’, ‘있을까요’, ‘홀리겠습니까’와 같이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 ④ (가)는 비유와 상징, 설의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나)는 ‘아아, 부질없구나.’, ‘헛되고 헛되도다’와 같이 영탄적 표현(감탄사, 감탄형 어미)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4. 시적 화자의 태도 이해 [3점] 정답 ①

1연에서는 ‘햇빛’, ‘십자가’와 같은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해가 십자가에 걸려 있는 교회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의 삶을 작품과 연결하여 해석할 때, ‘햇빛’은 화자의 이상이나 삶의 목표인 광복을, ‘십자가’는 구원이나 자기희생을 상징하므로 1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과 삶의 목표가 교회당 꼭대기처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1연에서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과 햇빛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햇빛이 걸린 첨탑을 ‘저렇게도 높’다고 하여 거리감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 즉, 2연에서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시대 현실에서 느끼는, 도달하기 어려운 삶의 목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중소리(청각적 이미지)’도 들리지 않는 상황과 그 속에 서성거리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시대 현실에 대한 화자의 고뇌와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설법을 활용하여 현실에서는 괴로웠으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했으므로 행복한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시대 현실에 필요한 자의식에 대해 깨닫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와 같은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대 현실 속에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의식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2점] 정답 ⑤

‘별빛’은 암담한 도시 공간의 삶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희망의 빛이다. 따라서 ‘노질을 계속해야 한다’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도시 공간의 일상이지만 희망과 꿈을 위해 일상을 수용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을지로는 실제 도시의 지명으로, 작품에서 뱃사람의 삶을 도시 공간에서의 삶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하’는 행위는 뱃사람이 조업하는 모습으로, 도시 공간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 ③ ‘집어등을 끄고 ‘눈물짓’은 모습은 ‘아아, 부질없구나’와 연결되면서 도시 공간에서 직장 일을 마친 뒤 느낀 삶에 대한 공허감을 드러낸 것이다.
- ④ ‘눈보라’, ‘엄동’은 혹독한 기상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로, 이를 통해 냉혹하고 힘겨운 도시 공간의 일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